

제7장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에 대한 믿는 이들의 태도

읽을 말씀: 계 12:5, 14:1, 눅 21:36, 살전 4:16-17, 살후 2:8,
딤후 4:8, 빌 3:20, 딤후 4:1-2, 마 24:42-44, 25:13

개요

I. 그리스도의 임하심 파루시아(임재)

1. 대환난 전에 하늘에서부터 시작함-계 12:5, 14:1, 눅 21:36
2. 대환난 끝에 공중으로 오심-살전 4:16-17
3. 대환난이 끝날 때 땅에 오심-살후 2:8

II. 그리스도의 임하심에 대한 믿는 이들의 태도

1. 사모함-딤후 4:8
2. 기다림-빌 3:20
3. 서로 권면함-딤후 4:1-2
4. 깨어 예비함-마 24:42-44, 25:13
5. 이기기를 구함-눅 21:36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의 풀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종교개혁 이전에 천주교는 이 일에 대하여 그다지 주의하지 않았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면에 대한 예언을 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도시대가 가고 난 후에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는 방면에 관한 쟁론은 교회를 두 파로 나누게 하였다. 결국 주후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니케아 회의를 열어 전체 기독교의 인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니케아 신경을 제정하여 쟁론을 잠시 진정시켰다. 200여 년이 지난 주후 571년에 교황제도는 정식으로 성립되어 보편적으로 로마 천주교로 인정되었다.

천주교의 통치 아래에서 교회는 10세기 동안 암흑 시대를 경험하였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먼저 일어나 개교를 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성경의 진리를 공개하였다. 그 후로 개신교 단체가 연이어 성립되면서 각 항목의 진리들이 점차적으로 해방되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진리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였다. 1828년 영국의 형제들이 주님에 의해 일으켜졌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열어 주셔서 성경에 대한 인식이 크게 진보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이 대체적으로 그들의 손에서 구체화되었다. 특별히 다비(J. N. Darby)가 이 부분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생각 하는 것에는 조리가 없었으며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았다. 후에 주님은 또 펴버(G. H. Pember)를 일으키셨다. 그는 성경의 예언에 대하여, 특별히 예언의 역사에 대하여 매우 익숙하였다. 그는 예언에 관한 네 권의 책을 저작하였다. 그 책 중에 한 권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에 대한 예언인 <대 예언(The Great

Prophecies)>이며, 나머지 세 권은 각각 유대인, 이방인, 교회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고 있다. 이 네 권의 책은 예언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의 예언을 알고자 추구하는 사람은 이러한 책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펨버는 성경의 예언에 관한 역사에 정통하며 그 방면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니엘서 8장에 있는 숫양과 숫염소가 서로 싸우는 이상을 예로 들어 보자. 그는 염소가 헬라제국을 가리키고 양은 바사제국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헬라제국의 상징은 숫염소이며 바사제국의 상징은 숫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권력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을 안다.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은 주전 606년에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훼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느브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나치게 잔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된 지 70년 후에 하나님은 메대 바사제국을 일으키셨다.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바사 왕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이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을 본다. 그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감동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중건하도록 한 것을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다. 후에 네 왕이 지나가고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러 그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명한 것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바사국은 한동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제국이다. 주전 330년경에 헬라의 북방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가 일어나 30여세에 헬라제국을 일으키고 짧은 몇 년 사이에 지중해 동쪽에서부터 인도강까지 정복하였다. 그래서 숫양을 상징하는 메대 바사를 무너뜨렸다. 그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대제사장 앗두아가 그를 영접하였으며, 다니엘서의 숫염소에 관한 것을 그에게 보여 주었을 때 그는 감동하여 유대인을 관대하게 대우하였다. 그는 숫염소처럼 야만적이고 횡포하게 힘을 발휘하였다. 그가 마케도니아로 돌아왔을 때 머리에 염소 뿔의 면류관을 썼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펨버를 이은 사람이 고벳(R. Govett)이다. 그는 성경의 예언을 가장 정확하게 쓴 사람이다. 후에 그의 제자 팬톤(D. M. Pantton)이 <여명>이라는 간행물에서 예언에 관한 적지 않은 진리를 해방하였다. 그는 이전에 바버 자매님(M. E. Barber)이 중국 대륙에 오도록 도왔었다. 바버 자매님은 원래 영국의 성공회 선교사로서 중국 복주로 보냄을 받았었다. 후에 어떤 사람이 그녀를 참소하여 그녀는 영국으로 송환되었고,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 그녀는 선교 단체를 사직하고 주님께로부터 부담을 받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이때 복주에서 워치만 니 형제님이 일으켜졌다. 그는 바버 자매님에게서 영적으로 보배로운 것을 아주 많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소개로 팬톤과 같은 사람의 작품들을 접하였다.

1928년에 니 형제님은 상해에서 계시록 성경 연구 집회를 열었다. 내가 1933년에 주의 일을 시작했을 때 그는 나에게 한 편의 원고를 주었다. 1976년에 나는 미국 아나하임에서 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훈련을 하였다. 지금 신약 회복역 안에 있는 예언에 관한 방면의 주석은 다비, 펨버, 고벳, 팬톤, 워치만 니 형제님 등의 저작으로부터 얻은 결정화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경 예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자신의 주관에 따른 독창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앞선 분들의 어깨 위에서 더욱 진보한 뿌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학자들의 저서를 읽으면서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그것은 지난 이백 년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을 강해한 사람들은 다음 두 가지 방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다니엘서에 기록된 칠십 이레의 마지막 이레에 관한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와 성도들의 휴거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이레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예언을 강해할 때 잘못된 관점을 산출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왕이며 이스라엘은 아직 부흥되지 않았다. 30년대에 팡톤은 무솔리니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였다. 그는 네로와 무솔리니의 사진을 가지고 두 사람의 비슷한 점을 지적하였다. 후에 또 어떤 사람은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피살된 후에 혼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히틀러는 죽고 장사지낼 땅도 없었다. 최근에는 중동의 정세가 급변함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라크의 대통령 후세인이 적그리스도라고 하였다. 후세인은 원래 아랍인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지중해 주위의 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다. 이러한 말들은 마지막 7년의 예언과 맞지 않는 틀린 말들이다.

그리스도의 임하심 파루시아(임재)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하심-파루시아를 말하려고 한다. 파루시아는 원문의 뜻이 임재이다. 고대에는 존귀한 사람이 올 때 사용한 말이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존귀한 그분의 임재를 말한다. 이 임재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분은 먼저 하늘에서 대환난 3년 반 전에 이기는 자를 데려가시고(계 12:5, 14:1, 눅 21:36) 대환난 마지막에 공중으로 오셔서 계시다가(살전 4:16-17) 대환난이 끝날 때 공중에서 땅으로 오실 것이다(살후 2:8).

성도들의 휴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리는 것에 관하여, 이기는 자는 대환난 전에 들림 받을 것이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환난 마지막 날에 들림 받을 것이다. 대환난 전에 사내아이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림 받을 것이다(계 12:5),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하늘의 시온산의 임재 안으로 들림 받을 것이다(계 14:1-4). 그리고 나머지 살아 있는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하늘의 임재 안으로 들림 받아(마 24:40-41, 눅 21:36, 계 3:10)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대환난을 면할 것이다.

대환난 전에 휴거되지 못한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남겨져서 성숙에 이르도록 대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초자연적인 재난이 많이 있을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을 잔해할 것이고, 세상은 형편 없이 변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겠지만 여전히 지내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삼 년 반이 가득 찼을 때 역대로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살아서 남아 있던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공중의 임재 안으로 휴거될 것이다(살전 4:15-17, 고전 15:51-52). 열 명의 부활한 처녀들이(마 25:1-12) 거기에 포함되며, 두 명의 증인이 부활하여 들림 받을 것이다(계 11:11-12). 그때 주님은 심판대를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을 심판하실 것이며(고후 5:10), 그분의 이기는 자들을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계 19:7-9). 그런 후에 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멸망

어린양의 혼인 잔치 후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인 이기는 자들을 그분의 군대로 삼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들과 그의 군인들과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실 것이다(계 16:14, 16).

그때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한 곳에 모여 이스라엘 나라를 훼파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고(계 14:19) 그 피가 말갈레까지 달게 될 것이다(계 14:20). 그러므로 그때 그분의 옷은 피가 뿌려진 옷이 될 것이다(계 19:13). 그리스도는 그분의 오심으로 적그리스도를 훼파하실 것이고(살후 2:8), 다른 면에서 번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어 이스라엘 온 집을 구원하실 것이다(마 24:27, 30, 계 1:7, 롬 11:26-27, 슥 12:10-14), 후에 그리스도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탄을 묶으시고 그를 무저갱에 던지실 것이다(계 20:1-3). 그렇게 왕국을 땅에 이끌어 오실 것이다(계 11:15, 12:10). 그분은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살아 있는 열국을 심판하시고 만민을 분별하실 것이다. 그때 영원한 복음을 듣고, 고통 받는 믿는 이들을 선대한 '양'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고 복을 얻어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않은 영소들은 저주를 받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마 25:31-46, 행 10:42, 딤후 4:1).

이스라엘의 부흥

이스라엘은 대환난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의해 짓밟힐 것이며(계 11:2), 대환난의 주요 재난이 그 땅에서 발생할 것이다(마 24:16-22).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해하고 소멸하며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여 그들이 위태로울 때, 그리스도는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찌른 그분을 보면서 울며 회개할 것이다(마 24:30, 즉 12:10). 그리스도는 감람산 위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슥 14:4-5).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심판하신 후에 그분은 천사를 보내셔서 큰 나팔소리로 흠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방에서 불러 그분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좋은 땅으로 모으실 것이다.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부흥할 때이며(마 24:31), 만유가 회복될 때이다(행 3:21). 그때부터 왕국 시대가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임하심에 대한 믿는 이들의 태도

사모하고 기다리며 서로 권면함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보배롭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한다(딤후 4:8). 성경의 마지막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라고 끝맺는다. 신약의 기록에서 우리는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생활을 산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는 바버 자매님이 이러한 생활을 산 것을 안다. 1925년의 마지막 날에 니 형제님이 그녀를 찾아가 함께 기도하는데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당신은 1925년을 지나가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1926년이 되어서야 오시겠습니까? 그러나 이해의 마지막 날에 저는 여전히 당신이 오늘 오시기를 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니 형제님이 길에서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또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이상합니다. 그분은 왜 아직 오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알기 때문에 느슨할 수 있으며 먼저 세상을 사랑했다가 마지막 이레가 되면 주님을 추구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주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임을 믿어야 한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한 부자가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혼을 즐겁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16-20)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아 오늘이 있고 호흡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을 열렬히 기다리며(빌 3:20) 서로 이것으로 권면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한 권면이다. 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지켜야 할 믿음도 이미 지켰으니, 심판대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면류관은 또한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주어진다(딤후 4:6-8). 그는 심판과 나라로써 디모데와 우리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생활을 하도록 깨운다. 이것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으며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도록 한다.

깨어 예비함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적과 같이 비밀스럽게 오실 것이다. 주님은 보배와 같이 그들을 그분의 하늘의 임재 안으로 훔쳐 가실 것이다(마 24:42).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마 25:13, 24:44). 우리가 휴거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늘에 속한 공기로 충만되어야 하며 그릇 안에 기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이 세상의 염려와 땅에 속한 향락으로 점유되어 있다면 그날에 휴거될 길이 없다. 우리는 썩의 처를 기억해야 한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철저히 훼파된 사악한 세상을 사모하며 보배로 여기고, 고개를 돌려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여 수치스런 땅에 버려졌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성숙되어 휴거될 때까지 대환난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남겨 두실 것이다.

이기기를 구함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깨우신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덮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기고 그 모든 일을 피한 후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지위를 주님께 완전히 드러야 한다(눅 21:34-36, 계 12:5-6, 14 참조).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성숙되어 들림 받고 상을 얻도록, 우리는 그분의 임하심을 위해 자신을 예비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자라야 한다.

1990년 10월 31일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전하신 메시지